

북한의 해외진출 현황과 시사점

조 명 철*

- I. 북한의 해외진출 방식과 특징
- II. 북한의 해외진출의 성과와 문제점
- III. 북한기업의 주요국별 진출현황
- IV. 북한의 해외진출이 주는 시사점

요 약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북한기업의 해외진출은 주로 노동당의 통치자금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고 진출지역과 진출업종이 대단히 단순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경제난이 심화되면서부터는 노동당 이외의 적지 않은 국가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면서 진출지역이나 진출업종이 비교적 다양해졌다. 하지만, 아직도 진출기업들의 규모가 작고 단순 인력수출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영업수익은 미미하다. 북한 당국차원에서도 해외진출에 관한 특별한 전략이나 정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대단히 산발적이고 즉흥적이며 비체계적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세계 각국에 진출해있는 북한 해외진출기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진출업종, 투자규모, 영업구조, 인력관리, 수입규모 등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북한의 적극적인 개혁과 개방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남북공동의 해외진출 전략과 방안들을 설명하고 있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북한의 해외진출 방식과 특징

북한이 해외로 진출하는 주요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첫째, 노동당의 통치자금 확보는 북한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북한 노동당 통치 및 운영자금 수입은 크게 내화 수입과 외화 수입으로 구분된다. 내화 수입은 당원이 납부한 당비와 당 소속기업의 운영수입 등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외화 수입은 국내 외화벌이수입과 해외진출 외화수입으로 이루어진다. 국내의 외화수입은 외화상점 및 외화요식업 운영, 호텔, 카지노 등 서비스업 운영, 금광, 송이버섯, 전복 등의 수출원천 확보를 통한 외화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해외의 외화수입은 기본적으로 기업 및 인력진출을 통한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벌어들인 자금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첫째로, 당 운영경비 지출이다. 당의 운영경비지출은 각급 당 조직과 소속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 원자재 구입비용의 일체가 포함된다. 둘째로, 국가의 정책지원에 사용된다. 당 외화자금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경제·사회 부문에 지원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대규모의 공장설비, 교육기자재, 원자재 등을 당 자금을 통해 외국으로부터 도입하여 해당기관에 지원한다. 셋째, 당 외화자금은 성과가 우수한 각계인사들에 대한

포상과 기업소, 농장 등 각 생산단위와 개인에 대한 포상제도 운영을 위해 사용된다. 예컨대, 포상으로 컬러TV가 선물된다는가, 각종 선물형태의 포상이 여기에 포함된다. 넷째, 최고위층의 소비물자 구입을 위해서도 당 자금이 사용된다. 최고위층의 일상생활에서 소요되는 각종 소비물자중에는 수입상품들이 적지 않게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당은 이러한 외화지출을 통해 북한에서 당의 우월적 지위와 인기를 유지하려고 한다.

북한이 해외로 진출하게 되는 주요 원인은 둘째로 국가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은 이미 1980년대에 들어 경제난이 시작되면서 그 해법의 하나로 해외진출을 강조하여 왔다. 경제난에서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는 원료와 원자재난을 해결하려면 국제시장에서 물자를 조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리고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무역에 의존한 소극적 외화수입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인식하에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서의 해외진출을 추진한 것이다. 정부의 각 부처들이 경제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각자 해외진출을 통한 외화수입으로 필요한 원부자재를 수입하기 위해 각방으로 내각 산하의 각 성들과 일부 연합기업소들은 생산에 필요한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성과 투자진출형태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보건성은 진료소와 의사들을 진출시키고 임업성

은 인력을 중심으로 하는 벌목사업, 경공업성은 봉제공장, 대외봉사총국은 요식업 등에 진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의 각 성, 기업마다 근로자의 생계를 자족으로 책임지우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외화벌이 목적에 노임·쌀 구매 등이 주요 항목으로 설정되기도 한다.

셋째, 북한이 해외로 진출하는 주요 원인은 국가무역을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의 해외진출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물자 확보를 위한 국가무역 수행에 있다. 즉 무역성에 소속된 공식적인 무역회사들이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식품, 원자재, 연료, 기계, 설비, 전자제품들의 물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다.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확립한 이후 기본 정책노선으로 삼아 온 것은 자력경제의 원칙에 입각한 이른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90년대의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자급이 불가능하거나, 국내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는 물자가 늘어나자, 수입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북한 내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의 격차까지 확대되면서, 심화된 외화난으로 인해 북한 당국이 대외 외화결제에 겪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대외무역의 적자와 외화난의 가중은 재정적자와 더불어 외화 획득을 위한 북한의 해외진출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넷째, 북한이 해외진출을 하게 되는 주요 원인은 군수물자 생산과 수출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북한경제에서 군수산업은 가장 중요한 산업부문이다. 군수생산을 위한 물자의 조달과 생산된 물자의 수출은 국가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진다. 북한의 외화수입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표 1〉 북한 건설인력 파견현황(추정)

진출국가	파견규모
쿠웨이트	3,500명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지역 한정)	8,000~9,000명
카타르	2,000명
아랍에미리트	1,500명
리비아	50명
나이지리아	n.a
나미비아	100명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1

부분도 군수산업부분이다.

북한의 해외진출방식은 크게 합작, 합영, 독자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이중에서 북한이 가장 선호하는 진출 방식은 북한 자금이 직접 투자되지 않거나 적게 투자되는 합작 형태의 진출방식이다. 간혹 외견상 합영 형태의 진출방식도 있지만, 실제로는 단순 인력공급의 형태가 대부분이다. 예외적으로 북한이 투자금 전체를 단독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에 진출한 대규모의 북한 식당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일부 개인이 단독투자 형태로 진출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대부분 순수 북한기업이라기 보다는 북한 내 거주하는 중국화교나, 일본 조총련계 자본으로 건립된 기업으로 보인다.

북한의 해외진출은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 북한의 해외진출의 특징은 업종과 지역으로 구분해서 분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북한의 해외진출의 업종별 특징은 주요 진출업종인 건설, 봉제, 요식, 무역업에서 나타난다.

첫째, 건설업은 가장 많은 수의 북한 인력이 파견된 부문으로 최소 12,000~13,000명 정도의 인력이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¹⁾. 이들은 주로 러시아와 중동국가에 건설인력으로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건설업 진출의 주요 특징은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과 건

설기술 진출이 아닌 단순건설노동력 진출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인력을 관리하는 북한의 주요 소속 기관은 내각 무역성 소속의 대외건설관리국, 노동당 수도건설총국과 류경건설, 인민보안성 남강건설사업소 등이다. 이 중 대외건설관리국은 북한 해외건설 부문의 대표적인 회사로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리비아, 카타르, 나이지리아 등 다양한 국가에 진출해 있다.

북한 건설업의 진출방식은 크게 건설사업을 직접 수주하는 방식과 현지 건설회사에 인력만 공급하는 방식 두 가지가 활용되고 있다. 대외건설관리국의 경우 리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지에서 소규모의 건설 중 일부를 직접 수주하여 시공하는 사례가 가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북한건설회사는 현지 건설회사에게 인력만 공급하는 인력송출회사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다.

북한과 인력 공급계약을 맺는 현지회사는 인력 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공정별 계약 방식이라 하여 일정 작업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다.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지회사가 북한회사에게 1인당 200~300 달러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회사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액수는 이보다 훨씬 낮은 100 달러 정도이며, 이마저도 숙식비 등을 차감하고 나면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1 자료

〈표 2〉

북한 봉제공 파견현황(추정)

파견국가	인 원
중 국	800~1000명
체 코	300명
아랍에미리트	160~170명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제로는 50 달러미만의 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로, 봉제업은 건설업 다음으로 많은 북한 인력이 파견된 분야이다. 2006년을 기준으로 1,600명 정도의 북한 봉제공이 해외에 진출한 것으로 파악된다²⁾. 내각 경공업성 소속의 은하지도국과 당 경공업위원회 봉화지도국, 당 39호실 대성 지도국, 낙원지도국 등이 의류, 봉제부문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북한 봉제공들의 평균 임금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아랍에미리트의 경우에는 120달러 정도이며, 잡비와 숙식비를 공제한 이후 봉제공들이 받는 임금은 매월 70달러 정도로 파악된다. 이에 비해 체코의 북한 봉제공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았었다.³⁾ 일인당 평균 임금은 270달러 정도이며, 각종 보험료 및 합숙비 등을 제외하면 약 170달러 정도의 임금을 받기도 했다.

봉제업진출의 주요 특징은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가치로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주로 여성노동력이 진출해 있다는 점이다. 판리는 건설업종이 다양한 부처가 관여되어 있는 것과 달리 주로 경공업부문 중앙당국의 관찰 하에 있다.

셋째로, 요식업은 북한이 특별한 기술 없이 인력만으로 손쉽게 진출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중국 및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 북한식당들의 소속기관은 내각 체육지도위원회(류경식당), 노동당 38 호실 고려봉사총국(고려호텔 직영 해당화), 평양시 인민위원회 대외봉사총국(옥류관), 심지어 인민무력부 등도 있다. 이들 기관들은 대부분 현지기업과의 합작형태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파견되는 인원은 지배인, 통역, 봉사원으로 구성되며, 식당의 규모에 따라 약 10~30명씩의 북한인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다. 북한식당은 매출에 대한 목표실적제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1자료

3) 체코의 봉제업은 인권문제계기로 철수됨.

〈표 3〉 북한식당의 해외진출 현황

진출국가	진출현황
중 국	북경 해당회를 비롯하여 40여개
캄 보 디 아	평양냉면, 친선관 등 3개
베 트 남	대동강식당
태 국	평양관
인 도 네 시 아	칠보산 식당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를 실시하고 있으며 만일 매출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사장 또는 부사장이 북한으로 소환된다. 식당 봉사원들의 급여는 중국을 기준으로 대략 25~30달러 수준이고, 파견 기간은 대략 3년 정도이다. 요식업 진출의 특징은 정부의 다양한 부처들이 진출하고 있고 심지어 지방당국까지도 진출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북한과 가까운 중국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우호 국가들에 한두개씩 진출해 있다.

넷째로, 무역업은 해외진출의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이다. 해외에 진출한 북한 기업 가운데 숫자 면에서 가장 많은 기업수를 차지하는 업종은 무역업이다. 북-중 접경지역에 진출한 무역회사만 해도 100여개가 넘고, 러시아에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40여개의 무역회사들이 진출하여 있다.⁴⁾ 이외에도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동지에

소규모의 북한 무역회사들이 진출해 있다. 이들 무역 회사들은 내각의 각 성과 노동당 산하기관들을 배경으로 하여 대표부, 지사, 합작기업 형식으로 설립되어 있는데, 이중 무역대표부 형태로 진출한 무역회사는 외화 벌이 목적 이외에도, 북한 내 소요물자의 구매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북한의 해외진출업종에는 보험업, 의료업, 농림어업 등이 있다. 보험업은 파견국에 보험대표부를 설치하여 현지에 보험회사를 설립 혹은 합작 후, 재보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당 중앙위원회 산하의 국제보험 총국이 '조선국제보험회사'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다. 해외에는 스위스(바젤), 독일(함부르크), 파키스탄(카라치), 멕시코(멕시코시티), 영국(런던) 등에는 해외보험대표부를, 아랍에미리트(두바이)에는 National General Insurance Co., Ltd.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1 자료

라는 합작보험회사를 두고 해외보험 활동을 하고 있다. 의료업 진출에서 보면 원래 북한의 해외파견은 제 3세계와 협조(남남 협조) 차원의 인도적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수익사업 형태로 성격이 변질되었다. 주요 파견 국가는 아프리카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농업·어업 분야의 인력 진출은 주로 러시아 지역에 집중되어있고, 일부 중앙 아시아(우즈베키스탄)와 아프리카 지역(앙골라)에도 진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러시아 극동지역에 파견된 별목공의 수만도 2,000여명 정도이고, 사할린과 연해주 등에도 상당수의 농업 인력이 파견되어 있다. 수산업 분야는 러시아가 북한 측에 할당된 어업쿼터 20,000톤을 이용한 진출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북한의 해외진출의 특징을 진출지역별로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북한의 해외진출은 주로 중국, 러시아, 중동과 기타 지역으로 구분된다.

첫째, 중국은 북한의 해외진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북한의 중국지역 진출은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국경과 인접한 동북 3성 지역과 경제권이 발달하여 진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북경·상해·광둥 지역에 많이 진출해 있다.

주요 진출 업종으로는, 요식업과 같은 노동 집약적 업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설비제조, 부동산개발, 식품가공 이외에도 관광 등의 서비스업과 IT산업의 S/W 개발 분야 등으로 점차 영역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지역에 대한 진출은 합작형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노동력과 기술을 제공하여 일정한 지분을 취득하거나, 북한이 중국 업체를 떠맡아서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 또는 조선족이나 재중교포와의 파트너쉽을 형성하며 운영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 형태로 파악된다.

둘째, 러시아는 중국 다음으로 북한의 진출 사례가 많은 국가이다. 대략 30여개의 기업들이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시베리아·극동지역의 별목사업과 어업분야를 중심으로 진출해 왔으며 최근에는 건설업과 북한의 수산·광산물을 수출하고 러시아의 기계·원유 등을 수입하는 무역업을 위주로 진출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진출 방식은 단순 노동력 제공의 인력송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동남아시아에서 북한은 요식업과 무역 및 운송업 분야를 중심으로 진출해 있고, 중동에는 군수물자의 수출과 건설업을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1 자료

중심으로 진출해 있다. 서유럽의 경우 북한은 선진시장의 정보를 확보하고 수출능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무역 및 금융 분야 중심으로 진출해 있는 반면, 동유럽은 해운업(폴란드), 봉제업(체코) 등을 중심으로 진출해 있다. 북한의 아프리카에 대한 진출은 기술력 우위를 바탕으로 농업, 광업, 전력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미주지역에 대한 진출은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진출 형태도 소규모 인력 파견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멕시코(침술사)와 칠레(보혈업)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II. 북한의 해외진출의 성과와 문제점

1. 진출기업의 외화 수입 규모 추정

북한이 정상적인 해외진출을 통해 획득한 외화수입의 총액을⁶⁾ 추산하는 데는 여러 한계가 있다. 우선 개별회사들의 경영실적에 대해서 파견국 정부는 물론 북한 내부에서도 구체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지 경영진을 포함한 극소수의 인원만

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개별 회사의 매출액, 수입과 지출액 등의 경영관련 세부정보를 수집하기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파견인력 급여액, 해외 북한 식당 수입규모를 통해 북한기업이 해외진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총수입을 추정하면 그 규모는 대략 4천만~6천만 달러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식당업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내 북한식당 가운데 가장 영업이 잘되는 '해당화'의 경우, 1~3호점씩 각각 1년 매출이 1,200만 달러를 상회하고, 이중 순수입은 최소 600만 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 중국에 진출한 중·소규모의 북한 식당은 40여개 정도이고, 이들의 1년 수익 규모도 식당별로 최소 10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만 식당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규모는 최소 1,000만 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다음으로 매출 규모가 큰 곳은 캄보디아에 진출한 식당들이다. 이들 식당의 매출 규모는 시엠립 지역이 월평균 미화 13~15만 달러 수준이고, 프놈펜의 경우는 월평균 미화 10만 달러 수준이다. 캄보디아에서

6) 이절에서 외화수입 추정은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수입액은 제외시켰다. 불법적인 외화수입이란, 마약, 위폐, 가짜 담배를 제조하여 번 수입으로, 미 의회조사국(CRS)의 라파엘 펠 연구원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북한이 위폐와 위조담배 등 위조품 판매로 현재 연간 5억 달러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추산하였다. JAY SOLOMON and GORDON FAIRCLOUGH, 'North Korea's Counterfeit Goods Targeted', THE WALL STREET JOURNAL, June 1, 2005

〈표 4〉 북한의 해외진출기업을 통한 외화수입 규모 (추정)

수입원	수입규모 (연간 매출기준)
인력진출(건설, 봉제, 임업 등)	3,000~4,000만 달러
식당업	1,300만 달러 이상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식당 운영으로 최소 200만 달러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베트남의 대동강 식당은 연 35,000달러 정도의 수입으로 올리고 있으며, 이외에도 태국의 평양관, 인도네시아의 칠보산 식당 등의 수입을 합하면 식당을 통해 북한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최소 1,300만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또 하나의 주요 수입원은 해외인력과견 사업이다. 북한은 대략 2만~3만 명의 노동인력을 해외로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인력의 대부분은 북한 인력송출회사들과 현지회사의 계약을 통해 해외에 파견되어 있다. 노동인력 1인당 북한이 받게 되는 임금은 건설업의 경우 약 월 300달러 내외, 봉제공인 경우 월 120~400 달러 내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이들을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수입은 연간 3,000~4,000만 달러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북한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총수입규모는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대략 4천만~6천만 달러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2. 해외진출의 문제점

북한의 해외진출 기업은 운영 전반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해외진출 북한기업의 관리운영상 문제점을 인력선발, 자금관리, 경영방식, 인력관리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파견인원의 선발과정에서는 출신성분과 안면 중시의 불공정한 선발로 인해 인력 배치상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의 북한 경제난 이후에 해외파견에 선발되기 위해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졌다. 이 과정에서 해외 파견인력의 선발이 출신성분, 안면, 뇌물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파견인원 중 상당수가 현지사업에 투입되지 못하고, 취사, 청소, 작업장 정리 등 단순작업에 종사한다.

둘째, 북한회사들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 본국으로의 송금 압박 등으로 항상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영업이 잘되는 일부 식당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북한 기업들은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통상적인 기업은 은행 대출에 의존해야 하나, 은행실무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기업 내부적인 자금 운영 측면에서 영업 수익이 발생하는 대로 본국에서 송금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투자를 위한 적절한 재원 마련이 어렵다.

셋째, 경영상 문제점으로는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부족과 북한식 경영방식으로 인해 사업 실패 또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대상 프로젝트의 손익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충동적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 이후에도 계약서에 대한 해석을 자의적으로 함으로써 이행과정에서 사업 파트너와의 분쟁 발생이 잦고, 결국 많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현지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본사 담당자들이 현지사업을 지휘하고 있으며, 현지에서도 책임문제 때문에 본사의 결정사항을 무조건 집행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경영방식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인력관리에 있어서는 인센티브 결여 등으로 효율적 인력관리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개별 노동자의 성과와는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동일한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동기 유발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중동의 북한 건설노동자에 대해 현지 조사해 본 결과, 많은 수의 노동자들은 현지 파견회사의 일과는 별개로 개인적인 수입을 올리기 위해 소규모 건설현장에 참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국에 송환된 이후, 재 파견 심사 시에도 이전 파견기간 동안의 근무 태도를 근거로 선발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이나 안면이 있으면 재 파견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현지에서의 효율적 인력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Ⅲ. 북한기업의 주요국별 진출 현황

1. 중국

가. 진출기업 수

북한의 대중국 기업 진출은 1985년 연길 두만강호텔 투자를 시작으로 연 평균 1건 정도에 머물다가 1992-96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증가하였다. 2005년까지 중국 상무부에 투자계획이 신고(등록)된 북한기업 수는 443개이며, 이 가운데 실제 투자가 이루어져 운영되는 기업은 200개 이하로 추정된다.”

나. 진출지역

북한의 주요 대중투자 진출지역은 동북 3

성, 북경, 상해 및 광둥 등이다. 특히 중국 의 동북 3성 지역에 가장 많이 북한 기업이 진출하여 있다. 동북 지역에 북한기업이 많은 주요 이유로는 북한과의 지리적 인접성, 다수의 조선족 거주, 남한 기업 및 관광객을 겨냥한 것 등으로 파악된다. 동북 3성 지역에 진출한 북한기업들은 대부분이 무역회사들이며, 이외에도 요식업, IT산업, 민간 예술품 가공 분야의 진출도 활발한 편이다.

한편 중국 남부지역에도 많은 수의 북한 기업이 진출하여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광저우 지역을 중심으로 식당과 은행, 무역상사 등 다수의 북한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 투자규모

북한기업의 투자규모는 100만 달러인 것은 10전 미만이며, 최대 규모의 투자도 1천만 달러를 넘지 않는 소규모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까지 북한의 대중투자액(누계)은 계약액 2억 5천만 달러이며, 실제 투자액은 9천 4백만 달러로서, 중국은 북한의 최대 투자대상국인 것이다. 2005년 1년간 투자계약은 38건으로 2,800만 달러이나, 실제투자액은 130만 달러로 파악된다.⁷⁾

중국 공상국 자료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투자금액을 합한 총투자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림 1>에서 보면 조사 대상 42개 기업 중 투자규모 20만 달러~50만 달러인 기업이 전체의 37%로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었으며 20만 달러 이하의 투자 기업도 전체의 29%를 차지함으로써 북한의 중국 진출기업 가운데 66%가 50만 달러 미만임을 알 수 있다.

라. 진출 형태

중국에 진출한 북한기업의 주요 진출 형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독자, 합자, 합작 등 3가지로 구분된다. 투자 자금이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자금을 직접 투입하지 않는 합작형태의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마. 진출 업종

북한기업의 중국진출은 초기에는 서비스·농업위주로 합작이 이루어지다가 1993년 이후 금속·화학·경공업 등 합작분야가 다양화 되었다. 하지만 북한의 투자는 기술과 자금 부족으로 전문적 고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투자보다는 대부분이 노동집약적 업종에 집중해 있다. 주요 진출분야는 설비제조, 부동산 개발·운영, 식당(요식업), 식품 가공 등이며, 투자분야가 호텔, 관광, 무역, IT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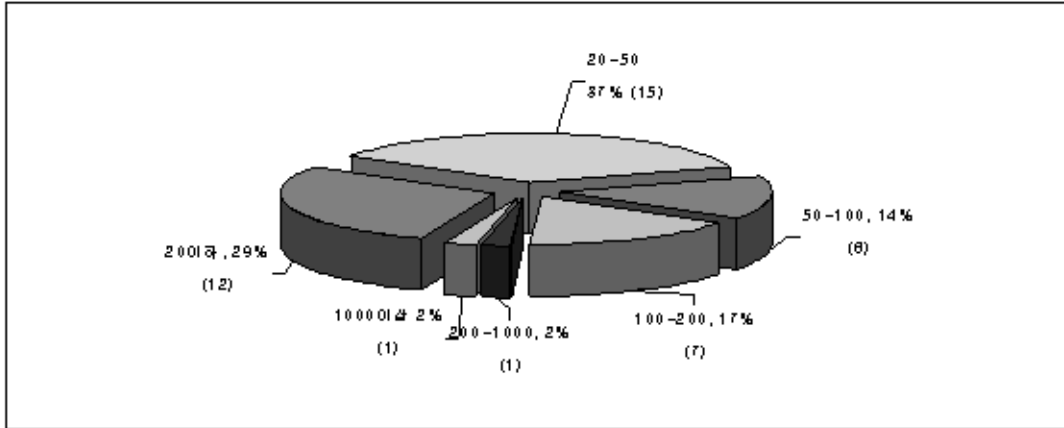
7) 주중대사관을 통해 중국상무부에 확인함.

8) 주중대사관을 통해 중국 상무부에 확인함.

〈그림 1〉

중국진출 북한기업의 투자액 규모(총 투자액 기준)

(단위: 만달러, %)



자료 :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 자료, 괄호 안의 숫자는 기업 수

바. 영업구조⁹⁾

중국 내 북한기업의 영업 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여러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진출이 활발한 식당, 무역업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영업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 내 북한식당 가운데 가장 영업이 잘되는 '해당화'의 경우, 1~3호점 모두 매일 평균 약 1만 불씩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에 진출한 북한식당이 40여개 정도 인 것으로 감안할 때, 매월 대북 송금액 규모는 최소 수십만 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무역업은 달러, 유로, 엔, 위엔 등을 통해 모든 거래가 대부분 현찰로 이루어

지고 있다. 중국 내 북한 무역업체들은 가전제품, 설탕, 자전거, 트럭타이어(중고품) 등의 생필품을 직접 구입해가거나 또는 중국에서 OEM방식으로 생산하여 북한에 들여가는 중계무역의 형태가 많다.

수입에 대한 송금은 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 인편을 통해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직원이 현금을 국경을 통해 직접 가지고 들어가거나, 단둥 등에서 배를 통해 운송하는 경우도 있다.

사. 인력관리

북한은 중국으로 나오는 북한인들에게 출국허가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당·정 권력기관들

9) 주중대사관 자료를 재구성

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업원들의 중국행은 자연스럽게 정부파견 성격을 가지게 된다. 북한대사관(영사관) 상무처에 있는 관계관(기업주관인사) 또는 보위부에서 파견 나온 지배인(관리인)이 기업종업원들을 관리(지도감독)한다. 종업원들은 내부규율이 엄격하며 퇴근 후에도 엄격한 감시 하에 통제된 특정 숙소에서 단체생활하고 있다.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하며, 휴무는 월 1~2일 정도로 파악된다.

2. 러시아

가. 진출배경

북한의 대러시아 인력송출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기타 국가와는 구별되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러시아의 국내적인 이유로 노동력의 절대 부족과 노동자들의 힘든 업무 거부현상을 들 수 있다. 1989년~2002년 사이 러시아 전체인구는 약 2.5% 감소하였고, 극동연방주의 인구는 약 12.5% 감소하였다. 중앙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엄격한 노동준수 요구를 명령하더라

도 지방 정부로서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느끼는 있는 관계로 준수요건을 거부하고 있는 형편이다.¹⁰⁾ 한편 북한 출신의 노동자들이 대대적으로 진출해 있는 농림업과 건설업의 경우 많은 수의 러시아 일반노동자들이 고임금을 보장하는 상업회사로 이직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역내의 부족한 노동력을 북한 노동자들로 일부 대체하고 있다.¹¹⁾

두 번째 북한의 대러시아 인력진출의 배경을 채무상환과 관련지어 보는 시각도 있다.¹²⁾¹³⁾ 2000년 10월 17일~20일 동안에 평양에서 개최된 '제 3차 북-러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 협조위원회'에서 북한의 부채상환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졌다.¹⁴⁾ 그러나 노동력 수출로 북한의 부채를 상환한다는 것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인한 바 있어, 사실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나. 진출형태 및 주요업종

북한의 대러시아 진출은 시베리아·극동 지역의 벌목, 건설, 어업, 농업 분야 협력이

10) 심의섭외, 1999, 「북한의 대러시아 인력협력과 극동연해주 개발」, □□동북아 경제연구□□, 제 10권, 제 2호, 한국동북아경제학회

11) 심의섭외의 앞의 책

12) 고재남(2002. 9), 김정일의 극동 방문 평가 및 러·북 관계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13) 'AI(Amnesty International) has charged that a 1995 bilateral agreement with North Korea allowed the exchange of free labor for debt repayment...'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2005, US Department of State

14) 허태강, 2004, □□러시아와 동북아□□, 오름,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대부분 러시아가 기계, 장비, 자본 등을 제공하고 북한은 노동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소규모 기업형태로는 건설, 제지공업, 광물자원 무역업, 한방의료, 식당, 자동차 정비업 분야 등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까지 북한의 대러 투자는 형식상 합작투자 방식이며, 대부분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양국 간 경제교류가 심화됨에 따라 운수, 관광, 서비스 분야, 수산물 가공 등으로 진출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지역별 진출실태

북한의 러시아 진출기업의 수는 하바롭스크, 연해주, 사할린, 아무르 등 러시아의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30개 정도가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각 회사는 1~2명 정도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주로 당, 군부, 정부부처 및 지방정부와 연관을 맺고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우선 러시아에서 발표된 자료¹⁵⁾에 의하면 연해주에 거주하는 북한 노동자는 2006년을 기준으로 5,300~7,000여명이며, 이들

은 주로 건설과 농림업 부문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할린 주에는 1,200여명이 건축업, 임업, 수산업, 가공업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아무르 주에는 1,500여명의 별목공이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⁶⁾ 종합하여 러시아에 진출한 북한 인력의 규모는 8,000~10,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라. 인력관리 및 노동여건

모스크바 소재 북한대사관 무역참사부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무역대표부가 통상투자 업무를 비롯한 북한 진출기업에 대한 관리를 총괄·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에 파견되어 있는 인력들은 대사관 무역 참사부와 무역 대표소의 통제와 지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¹⁷⁾

노동여건은 작업장마다 조금씩 상이하다. 노동시간의 경우 일반 노동자는 매일 16시간에서 17시간 정도 노동하는 반면, 별목장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를 노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휴기는 일 년에 일주일 정도가 주어진다. 급여는 일반 건설공의 경우, 월 150~200달러를 받으며, 이 중 60~80 달러는 국가에

15) Petrovna. 2003. "Foreign economic relations of Primorskiy Krai: Current state, problems, development prospects". Primorskiy krai Administration

16) 연합뉴스(2005.06.08), 北, 아무르주에 별목공 파견 확대 요청

17) 주러대사관 자료 참조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기술자인 경우에는 개별 아파트의 건설 또는 수리를 맡아 한 달에 2,500 달러까지 벌고 있으며, 이 중 750달러 정도를 국가에 납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¹⁸⁾ 벌목공들은 일단 3년 계약으로 근로비자를 얻어서 파견된다.

3. 쿠웨이트

현재 쿠웨이트에는 수도건설, 남강건설, 광복건설, 류경건설 4개의 북한 인력송출회사가 진출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인력송출회사들은 약 3,500명의 북한 노동인력을 쿠웨이트의 건설현장에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북한 근로자들은 저소득 이주노동자 거주지역의 값싼 아파트나 건설현장에 마련된 가전물 숙소에서 합숙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파견된 당 비서와 통역요원 등이 숙소에 분산 배치되어 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다.

진출 회사들은 건설프로젝트를 수주·하청하는 영업활동이 아니고 인력공급만 하고 있으며, 주재국의 인력수입회사와 일괄공급 계약을 맺고 있다.

급여는 일인당 월 300달러로 책정되어 있으며, 개인에게 지급되는 액수는 월 100달러 정도로, 급여 중 50달러는 숙식비로

공제하고, 150달러는 현지 건설회사와 북한 인력공급회사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 파악된다. 송금은 현금으로 수령, 외교통행으로 주 시리아 북한대사관을 경유, 북한으로 보내진다.

4. 베트남

현재 베트남에는 호치민시에 북한의 대동강 식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북한은 하노이에도 북한식당 진출을 모색 중에 있다. 대동강 식당은 조선관광총국에 의하여 2003년 10월에 진출·운영되고 있는 100% 단독투자기업이다. 이 식당의 설립자본은 일본 조총련 자본으로 추정되고 있다. 종업원 수는 여성점객요원 5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식당임주전물 일부를 숙소로 활용하고 있다. 대동강 식당의 수입규모는 연 35,000달러 수준으로 파악되며, 관련 세금 및 송금방식은 탈세를 위해 북한에서 관리가 오거나 북한선탁이 들어오는 경우 인편으로 일괄하여 송금하고 있다.

5. 나이지리아

현재 나이지리아에는 북한의 대외건설총국, 경공업 대리점, 당코-만년계약공장, 출

18) 러시아 현지 탈북자 면담 내용 참조

판대표단, 컴퓨터 회사 등이 진출하여 있다. 이중 무역성 대외건설국 소속의 대외건설회사는 종합회사로서 의료, 건설, 행사 등 각 종분야의 기술협력과 교류 및 건설수주를 담당하고 있다.

6. 독일

독일에는 현재 고려항공, 북한 보험회사, 용성특허사무소, 조선우표사 등 4개의 소규모 북한 기업 지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려항공의 주업무는 독일에서 북한으로 여행하는 방문객들에게 북경-평양간 비행기 표를 발권하는 것이다. 베를린에 지사가 있으며, 2명의 직원이 파견되어 있다. 북한보험회사는 함부르크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3명의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의 용성특허사무소와 조선우표사는 바이에른 주에 소재하고 있으며, 각각 1명의 직원이 파견되어 있다.

7. 체코

체코에는 현재 '체코-조선 기술협조회사'와 '은하 무역' 등이 진출해 있다. 체코회사

는 건물과 부지, 설비 등을 부담하고, 북한은 인력을 담당하기로 하여 이익을 50%씩 나누는 조건으로 합작회사 형태로 설립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합작이라기보다 북한 회사는 사실상 인력송출 회사에 가깝다.

체코-조선 기술협조회사에는 2006년 184명의 북한근로자가 주재하였고, 은하무역에는 114명이 주재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체코 내의 북한 봉제공들의 노동력 착취와 인권문제가 강하게 제기되면서, 현재 체코에 거주하는 북한 인력은 수십 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¹⁹⁾

북한노동자들은 1인당 견습비로 6,066Kc(코루나: 약 270달러)를 받으며 실 수령액은 이중 건강보험금 280Kc, 사회보험금 500Kc, 세금 300Kc 및 합숙비 1,000Kc를 제외한 4,000Kc(약 175달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8. 멕시코 및 페루

멕시코에는 4명의 북한 침술사가 파견되어 있으며, 페루에는 노동당 산하기관들에서 파견된 인원들이 식당, 상점들을 운영하고 있다.

19) 안윤석, 2008. 8. 10. 노컷뉴스
서달환, 2007. 12. 18. 크리스천투데이

IV. 북한의 해외진출이 주는 시사점

북한의 해외진출은 대단히 영세하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북한의 해외진출은 해외로 나간다는 의도는 좋으나 진출목적이거나 수입의 용도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많다. 현재 북한이 해외진출을 체제개혁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의지는 그 어디에서도 엿보이지 않는다. 특히 해외진출의 어려움을 남북한의 협력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해외진출은 북한의 개방에서 중요한 수단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이 개방을 소극적으로 하듯, 해외진출 역시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해외진출 수요를 활용하여 북한을 개방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남북공동해외진출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남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상황과 관련해서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남북경제의 상호 보완성을 들 수 있다. 남한경제는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자본이 축적되고 기술을 비롯한 관리능력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비용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한계효율이 낮아져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사태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북한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노동인력을 해외에 수출함으로써 부족한 외환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

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이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하는 형태로 해외에 진출할 경우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의 해외 공동진출 프로젝트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양국의 해외시장 공동진출에 대한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별히 남한의 추진의지 뿐만 아니라 북한당국의 의지가 강하게 요청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보관련 환경 개선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불안정한 안보환경이 제거되지 않는 한 양국의 협력의지는 퇴보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극복해야 할 요소는 북한 측의 체계화되지 못한 추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북한이 국제상거래 관행에 익숙하지 못한 점과 관련 지식의 부족 및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미비 등이 주로 포함된다. 특히, 권력기관이 북한 내의 특권을 이용하여 중요한 사업을 판장해온 기존의 관행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해외공동진출을 모색한다면 다양한 진출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중국과 러시아 지역과의 3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이를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해외진출의 핵심축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남한의 기술과 자본을 북한의 노동

력과 결합하여 중국지역의 광활한 시장을 대상으로 남·북·중 3국 공동의 경제적 수익 획득을 주목적으로 한다. 또한 안보적인 관점에서는 러시아의 자원개발을 대상으로 진출하되, 연해주 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협의를 도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남·북·러 3각 협력의 축을 형성하는 것이다. 둘째, 남북공동 해외진출을 통해 지역별로 전략적 거점을 구축하는 것을 추구해 볼 수도 있다. 특히 초기 단계에는 중국의 동북 3성지역과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에 협력거점을 마련함으로써 집적효과와 시너지효과를 통해서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협력 거점을 구축하는 작업은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을 거점으로 마련하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해외진출업체 사이에 연계망을 구축을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관련 기관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초기에는 생생한 현장의

정보와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함으로써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는 작업을 추진하며, 점차적으로 분야별, 지역별로 전문화와 분업체계를 구축해가는 협의 채널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평가하자면, 몇 가지 중요한 극복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보완성이 크기 때문에 남북이 해외에 공동으로 진출할 경우 서로가 이익을 얻게 될 가능성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으로 야기된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남북 당국간 회담의 중단, 더 나아가 6자회담의 중단사태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제 3국에 대한 남북 공동진출 사업은 당분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군사·안보적 긴장상태가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에나 남북간에 해외 공동진출 사업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K**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국정원, □□ □□북한의 산업실태와 남북협력방안□□, □□ 2006.
- 강봉구, □□ □□러시아 극동지방의 인구안보와 고려인의 재이주□□, □□ 월간 아태지역동향, □□ 2004년 9월호, □□ 2004.
- 고재남, □□ □□김정일의 극동 방문 평가 및 러·북 관계 전망□□, □□ 외교안보연구원, □□ 2002.
- 고영환, □□ □□북한 외교정책 결정기구 및 과정에 관한 연구: 북한의 대중동·아프리카 외교를 중심으로□□, □□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2000.
- 김도희, □□ □□중국의 성장과 대안기업의 역할□□, □□ 한국정치학회 37권, 제5호: 331-475, □□ 서울: 한국정치학회, □□ 2002.
- 김득갑, 한창수, & 오정수, □□ □□기업 해외진출 성공의 조건□□, □□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2004.
- 김원배 외, □□ □□러시아 연해주에서의 자원 인프라 개발을 위한 한·러 협력방안□□, □□ 서울: 국토연구원, □□ 2003.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러 대북정책 협의회 결과보고서□□, □□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7.
- 동아시아경제연구원, □□ □□두만강지역 개발을 위한 상업은행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1997.
- 문성민, □□ □□북한 금융의 최근 변화와 개혁과제□□,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2005.
- 박형원 외, □□ □□해외건설 투자사업 확대를 위한 금융조달 방안□□, □□ 건설교통부 연구용역보고서, □□ 2005.
- 심외설 외, □□ □□북한의 대러시아 인력협력과 극동·연해주 개발, □□ 동북아경제연구□□, 10권 □□ 제 2호: 33-25, □□ 서울,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1999.
- 장정욱 & 김윤태, □□ □□중국투자 대안기업의 현지와 경영, □□ 중국연구□□, □□ 제36권: 289-303, □□ 2005.
- 장형수 외, □□ □□러시아의 구조전 루블화 표시 대외채권 처리에 관한 연구□□, □□ 지역연구시리즈 05-02, □□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5.
- 정승호, □□ □□북한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제4차회의에서 발표된 국가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경제정책□□, □□ KIEP 세계경제, □□ 2006년 5월호, □□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6.
- 정형근, □□ □□김정일 위원장의 訪中과 북한경제의 개혁·개방 전망□□, □□ KIEP 오늘의 세계경제, □□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5.
- 조영조, □□ □□북한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및 환거래계약 체결 현황□□, □□ 2003년 4월호, □□ 수출입은행 2003.
- 조명철, 김지연, □□ □□북한의 해외진출 현황과 시사점□□, □□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7.
- 외, □□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5.12.
- _____, □□ □□남북경협 로드맵□□,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2.

- _____, 외, □□ □□북핵 해결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지원 활성화 방안: 양자간 지원을 중심으로 □□, □□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5.
- 조이현, □□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효율적 지원방안 □□, □□ 서울: 중소기업연구원, □□ 2006.
- 안예홍, □□ □□7·1조치 이후 북한의 인플레이션 발생원인과 정책당국의 대응 □□, □□ KDI 북한경제리뷰 2005. □□9월호, □□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2005.
- 연합뉴스, □□ □□개성공단 노동자 착취우려 □□, □□ 2006.
- 이병화, □□ □□남북한 공동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업개발사업 □□, □□ 서울국제농업개발원, □□ 2007.
- 이재영, □□ □□북·러 경제관계의 변화와 시사점 □□, □□ 정여천 편, □□ 한·러 경제 교류 10년의 평가와 러시아 경제의 미래, □□ pp, □□ 456~495, □□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0.
- 이재영, □□ □□러시아의 역할과 대북 경제지원방안 □□, □□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5.
- 임인택, □□ □□북·러 경제교류 현황 및 전망 □□, □□ 서울: 한국무역협회, □□ 2001.
- 조명철 외, □□ □□북한의 해외진출 현황과 시사점 □□, □□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6.
- 조영기, □□ □□남북한 청산결제제도의 운용 방안과 과제 □□, □□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 2007.
- 최수영, □□ □□동북아경제와 북한경제의 발전방향 □□, □□ 서울: 통일연구원, □□ 2005.
- 최주환, □□ □□북한군의 외화벌이 실태와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 □□ 북한조사연구 □□, □□ 서울: 통일정책연구소, □□ 1999.
- 포항공과대학, □□ □□남북공동연구 및 컴퓨터 요원 양성 시범 협력 사업 □□, □□ 한국과학기술부, □□ 2005.
- 코트라, □□ □□경제용어 □□, □□ 서울: 코트라, □□ 2007.
- _____, □□□□ □□대륙별 국가정보 (독일) □□, □□ 2007.
- _____, □□ □□대륙별 국가정보 (멕시코) □□, □□ 2007.
- _____, □□ □□대륙별 국가정보 (베트남) □□, □□ 2007.
- _____, □□ □□2006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 □□ 2007.
- _____, □□2005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 2006.
- _____, □□2004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 2005.
- _____, □□ □□2003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 □□ 2004.
- _____, □□ □□2001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 □□ 2002.
- _____, □□ □□2000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 □□ 2001.
- _____, □□ □□1999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 □□ 2000.
- _____, □□ □□1998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 □□ 1999.

- _____, □□ □□1997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 1998.
- _____, □□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 2007.
- 하나프로그래머센터, □□ <http://www.hanasoft.com.cn>, □□ 2007.
- 한국무역협회, □□ □□2005 남북교역동향□□, □□ 2006.
- _____, □□ □□2006년 1-12월 남북교역 동향□□, □□ 2007.
- 한국은행, □□ □□남북한의 주요경제지표비교□□, □□ www.bok.or.kr, □□ 2007.
- _____, □□ □□북한 GDP관련통계□□, □□ www.bok.or.kr, □□ 2007.
- 한국수출입은행, □□ □□국가별 해외투자현황(미국)□□, □□ 2007.
- _____, □□ □□기업규모별 해외 직접투자 목적□□, □□ 2007.
- _____, □□ □□업종별 한국의 해외투자현황□□, □□ 2007.
- _____, □□ □□해외투자통계□□, □□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 2007.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 □□해외건설자료: 연구보고서□□, □□ <http://www.icak.or.kr/>, □□ 2007.
- 통일부, □□ □□금강산 관광□□, □□ <http://www.unikorea.go.kr/>, □□ 2007.
- 국제협력단(KOICA), □□ □□경제협력의 정의□□, □□ 2007.
- 두산세계대백과, □□ □□경제협력(Economic Cooperation)□□, □□ 2007.
- 국제농업개발원 홈페이지, □□ <http://www.iadi.or.kr/>
- 국토연구원, □□ □□건설경제□□, □□ 겨울호, □□ 2006.

2. 외국문헌

- JAY SOLOMON and GORDON FAIRCLOUGH, □□ 2005, □□ □□North Korea's Counterfeit Goods Targeted□□, □□ THE WALL STREET JOURNAL, June 1.